

치유의 밤 'Musicscape - From here to everywhere...'

팀 뮤직스케이프 · 2026년 10월 30일(금) 오후 7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Section 1 · Press Release — 언론 배포용 핵심 요약

1. 헤드라인

메인헤드라인

팀 뮤직스케이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서 '치유의 밤 - Musicscape' 음악회 개최

서브 1 기타·피리·바이올린의 선율에 입체음향과 프로젝션 맵핑, 공간향이 어우러지는 무대

서브 2 광주현대병원과 재단법인 최명숙·생명숲의 후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무대

2. 리드문

예술 프로젝트 그룹 팀 뮤직스케이프(주최)가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치유의 밤 'Musicscape - From here to everywhere...'를 공연한다. 뮤직스케이프 랩이 주관하는 이번 무대에는 작곡가 겸 기타리스트 최인을 중심으로 피리 연주자 유현수,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이 함께 서며, 약 110분(인터미션 15분 포함) 동안 클래식과 국악의 어쿠스틱 사운드에 입체음향과 미디어아트, 공간향 디자인으로 연출한 실내악을 선보인다. 광주현대병원과 재단법인 최명숙·생명숲의 후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무대로 마련된다.

3. 공연의 핵심 포인트

— 장르 융합 — 클래식 기타와 바이올린, 피리가 서로의 호흡에 스며들며 하나의 음악으로 어우러진다.

— 핵심 테크놀로지 — 소리의 방향과 거리를 무대 공간에 배치하는 입체음향, 음악의 밀도에 따라 변화하는 미디어아트 영상, 공간의 향 경험을 디자인하는 FORMLESS의 공간향이 동시에 작동한다.

— 관람 포인트 — 숲과 바다에서 출발해 감포 앞바다에서 나누는 기타와 피리의 대화, 서예의 필법을 담은 <서(書)>를 지나 <From here to everywhere>의 민들레 들판으로 이어지는 10 곡의 서사를 실황으로 확인할 수 있다.

Section 2 · Deep Preview — 문화잡지·프레스킷용 심층 분석

4. 기획 의도와 미학적 배경 — Why Arts & Tech?

최인의 곡들은 우리 자연의 풍경과 문화유산, 전통 철학, 동시대의 화두를 메타포 삼아, 우리 삶과 맞닿은 이야기를 서사로 품고 있다. 입체음향과 미디어아트, 공간향은 그 서사를 관객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으로 옮기는 장치들이다. 클래식 기타 한 현의 울림이 입체음향을 통해 공간 속 좌표를 얻고, 미디어아트의 빛과 FORMLESS의 향을 지나 객석에 닿는 동안, 음악 속 이야기는 점점 더 선명한 감각으로 확장된다.

공연은 숲과 바다의 풍경에서 시작해 길 위의 만남과 이별, 역사와 기억의 시간을 지나 고독과 기도를 통과한 뒤 다시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는 흐름으로 짜여 있다. 자연을 향했던 시선은 점차 삶의 안쪽으로 이동하며, 관객은 무대 위 음악을 따라 자신의 기억과 정서를 조용히 되짚게 된다.

이 흐름에서 치유는 감각을 다시 여는 시간으로 정의된다. 잠시 멈추어 소리를 듣고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마주하며,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위로를 얻는 동시에 관객과 연주자가 함께 호흡하며 앞으로 나아갈 희망을 나누는 과정이 공연이 말하는 회복이다. 광주현대병원과 재단법인 최명숙·생명숲의 후원으로 이번 무대가 마련되어, 그 회복의 시간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눈다. 개인의 감각을 확장하는 무대 기술과 그 경험을 나누는 반경을 넓히는 일은 '이곳에서 모든 곳으로(From here to everywhere)'라는 제목 아래 하나로 연결된다.

5. 무대 메커니즘과 연출 디테일

첫 곡 〈숲〉은 기타와 바이올린의 이중주로 문을 연다. 무대 스크린에는 잣나무 숲과 계곡물, 나뭇잎 사이로 떨어지는 햇살의 영상이 흐르고, 입체음향은 바람과 새소리를 객석 둘레에 방향성 있는 소리로 배치한다. 공연장의 물리적 공간과 영상 속 숲의 공간이 겹쳐지는 지점에서 곡이 시작된다.

〈감포 앞 바다에서〉는 기타와 피리의 대화로 구성된다. 문무대왕암과 감은사지를 답사하며 쓰인 이 곡에서 피리는 바람과 파도의 호흡을 닮은 음색으로, 기타는 대지와 바다의 메아리를 담은 울림으로 응답한다. 스크린에는 달빛 아래 바다와 탑의 실루엣이 투영되며, 모든 파도를 잠재운다는 만파식적 설화가 두 악기의 대화 위에 겹쳐진다.

기타 독주곡 〈서(書)〉는 서예의 호흡과 필법에서 출발한 곡으로, 무대 영상은 붓의 획이 이어지듯 번지고 흐르는 먹의 궤적을 그린다. 연주자의 주법은 먹의 농담과 필선의 기세를 소리로 옮기며, 영상의 속도와 연주의 다이내믹이 같은 리듬으로 움직인다.

공연의 마지막 정규곡 <From here to everywhere>는 기타와 바이올린의 이중주로, 산비탈을 가득 메운 노란 민들레 군락의 영상이 무대를 채운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소망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는 이미지는 두 악기의 선율이 서로를 감싸며 확장되는 구조와 맞물린다. 이 장면에서 입체음향과 미디어아트, 공간향은 각각의 층위로 존재하다 하나의 정서로 수렴한다.

공연 전체에 걸쳐 입체음향은 좌석에 따라 달라지던 기존 스테레오 음향의 스위트 스폿을 넓혀, 보다 넓은 범위의 객석에서 기타와 바이올린, 피리 각각의 위치와 음색을 또렷하게 인지할 수 있는 정위감 있는 사운드 이미지를 구현한다.

공간향 디자인은 브랜드와 공간의 후각 경험을 설계하는 스튜디오 FORMLESS가 맡는다. 조향사이자 FORMLESS 대표인 천민주는 공연의 정서에 맞는 향을 선정하고, 공간별 발향 위치와 강도, 운영 방식을 설계한다.

6. 창작진 인터뷰 / 인용구

"관객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음악에 담았습니다. 소리와 영상, 기술과 향과 같은 도구들을 통해 그 이야기가 더 잘 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무대를 통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시간을 가져가길 바랍니다."

— 최인 (작곡·예술감독)

"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중에 머물며 기억과 감정을 건드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음악과 장면, 공연 전체의 정서에서 향의 출발점을 찾았습니다."

— 천민주 (공간향디자인감독 · FORMLESS 대표)

Section 3 · Preview — 일간지 단신용 기사

소리가 풍경이 되고, 풍경이 위로가 되는 밤...팀 뮤직스케이프 '치유의 밤' 10월 30일 공연

예술 프로젝트 그룹 팀 뮤직스케이프가 오는 10월 30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2에서 치유의 밤 'Musicscape - From here to everywhere...'를 공연한다.

이번 무대는 작곡가 겸 기타리스트이자 팀 뮤직스케이프 대표인 최인이 이끈다. 국가무형문화재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인 피리 연주자 유현수와 독일 함부르크 심포니 수석을 지낸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이 함께한다. 최인의 창작곡 10곡을 클래식 기타 독주와 바이올린·피리 이중주로 연주하며,

입체음향과 미디어아트 영상, 조향 스튜디오 FORMLESS의 공간향 디자인으로 무대를 연출한다.

숲과 바다의 풍경에서 출발해 경주 감포 앞바다를 그린 기타·피리 이중주, 서예의 필법을 소리로 옮긴 기타 독주곡 '서(書)'를 지나 민들레 들판의 영상과 함께하는 'From here to everywhere'로 마무리된다. 최인 예술감독은 "소리와 영상, 기술과 향을 통해 음악에 담은 이야기가 관객에게 더 잘 닿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공연은 광주현대병원과 재단법인 최명숙·생명숲 등의 후원으로 마련돼 지역사회와 회복의 시간을 나눈다. 8세 이상 관람가이며 러닝타임은 인터미션 포함 약 110분이다. 티켓은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으로 NOL 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70-4220-3287.

공연 소식란용 (약 150 자)

[공연] 치유의 밤 'Musicscape - From here to everywhere...' = 10 월 30 일 오후 7 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2. 기타·작곡 최인, 피리 유현수, 바이올린 송지원.
입체음향·미디어아트·공간향을 더한 실내악. R 석 7 만원·S 석 5 만원·A 석 3 만원. 070-4220-3287.

Section 4 · Event Information — 공식 정보

7. 공연 개요

공연명	치유의 밤 'Musicscape - From here to everywhere...' (영문: Musicscape - From here to everywhere...)
일시	2026년 10월 30일(금) 오후 7시
장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공연형태	클래식·국악 베이스의 미디어아트, 입체음향 무대연출, 공간향 디자인 융복합 실내악 공연
러닝타임	약 110분 (인터미션 15분 포함)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티켓 가격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예매처	NOL 티켓 (nol.yanolja.com/ticket/products/26013395)
예상 관객	약 400명
출연	최인(기타·작곡), 유현수(피리), 송지원(바이올린)
주최	팀 뮤직스케이프 (Team Musicscape)
주관	뮤직스케이프랩 (Musicscape Lab)
후원	광주현대병원 · 재단법인 최명숙·생명숲 · 이용한기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찬	FORMLESS(공간향 디자인) · HEE:I
제작진	음향디자인·음향감독 이수용 / 영상디자인·영상감독 이근요(이뿌리) / 조명 디자인·조명감독 최예원 / 무대감독 이미리 / 공간향디자인감독 천민주 (FORMLESS) / 촬영감독 천에녹(FineEli Lab)
공식 채널	홈페이지 www.team-musicscape.kr · 인스타그램 @Team_Musicscape
취재 문의	팀 뮤직스케이프 언론 담당 이미리 Miri_lee@musicscapelab.com / 010-6736-3287

8. 출연진 프로필

최인 (기타·작곡)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최인은 한국에서 다수의 콩쿨에서 입상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를 졸업하고 벨기에로 유학, 레멘스인스티튜트(Lemmensinstituut)에서 석사학위를 그리고 독일 로스톡 국립음대(Hochschule für Musik und Theater, Rostock)에서 콘체르트엑자멘 과정을 만점으로 졸업하였다. 독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내악과 독주활동을 펼쳐왔으며 서울대 현악합주, 원주시향, 부천신포니에타, 인천시향과의 협연 및 다수의 독주회, 라디오 출연, 드라마 OST 작곡 및 연주, 피에스타 기타 앙상블, 기타 퀸텟 Imagine, 듀오 카프리지오소의 리더로 활동해왔다. 또한 세종솔로이스츠와 서울시향의 객원 연주자로 무대에 오르며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왔다. 다양한 레퍼토리 와 학구적이고 감성적인 그의 연주는 유럽과 한국에서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현재 팀 뮤직스케이프의 총 감독으로 다양한 동시대적 주제들을 가지고 꾸준히 기타 독주와 실내악곡들을 창작·연주해 가고 있으며, 영상·인터랙티브 그래픽·프로젝션 맵핑 등을 활용하여 음악과 표현의 영역을 더욱 확장해가고 있다.

유현수 (피리)

국립국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모두 마쳤다. 국가무형문화재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이자 '종묘제례악' 전수자로, 전통음악의 품격을 전승하는 동시에 현대적 감각으로 관객의 마음을 울린다. 제68회 조선일보 신인음악회를 시작으로 국내 주요 무대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카메룬, 일본 등에서 초청 공연을 통해 피리의 존재감을 세계에 알렸으며, 현재 수원대학교 국악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송지원 (바이올린)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학사·석사 과정을 마치고 독일 쾰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세계일보 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조선일보 콩쿠르, 부산MBC 콩쿠르, KBS한전콩쿠르, The Canetti International Violin Competition 등 국내외 주요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KBS교향악단, 프라임 필하모닉,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대전시향, 군산시향, 포항시향,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오케스트라, Saima Sinfonietta, 몰도바 방송 교향악단, 쾰른 챔버 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독일 함부르크 심포니와 뒤셀도르프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수석을 역임했다. 현재 숙명여대, 예원학교, 서울예고, 선화예중·고, 부산예중에 출강하고 있으며, 함신악과 Symphony S.O.N.G의 악장, 대전챔버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록 — 공연 프로그램 상세

연번	작품명	구성	소요시간
1	숲	클래식기타, 바이올린 이중주	8:00
2	바다, 산	클래식기타 독주	8:00
3	서(書)	클래식기타 독주	7:00
4	가던길	클래식기타, 피리 이중주	8:00
5	감포 앞 바다에서	클래식기타, 피리 이중주	7:00
— 인터미션 15분 —			
6	석, 풍, 수	클래식기타 독주	8:00
7	Prayer	클래식기타 독주	6:00
8	Island	클래식기타 독주	7:00
9	From here to everywhere	클래식기타, 바이올린 이중주	11:00
10	Blue Hour (앙코르)	클래식기타 독주	6:00